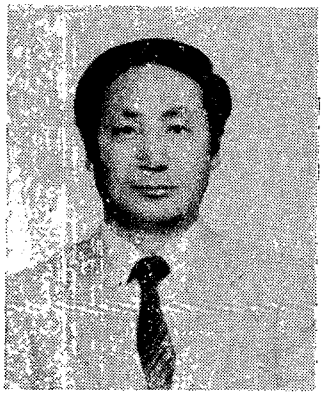
環境保全 汎國民運動 推進計劃解說



崔 泓 植
〈本協 事務總長〉

****

Ⅰ. 汎國民運動의 目的과 背景
Ⅱ. 主要計劃推進方向
Ⅲ. 汎國民運動細部推進計劃
Ⅳ. 汎國民運動推進實積

****

Ⅳ. 汎國民運動推進實績

貯蓄運動등과는 달리 이 保全運動은 당장 뚜렷한 實績은 計量化 할 수는 없다.

주로 環境權意識의 提高를 유도하는 교육, 강연, 캠페인 등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는 價値觀의 轉換問題로 당장에 나타나기 보다는 다음 세대,그 다음 세대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1980年 第5共和國 출범과 함께 憲法에 環境權이 明文化 되고, 環境行政을 主管하는 環境廳이 創設되면서 부터 사회여론의 沸騰과 함께 1982년부터 本協會가 중심이 되어 本運動을 추진해 온지 어언 4년째를 맞이하는 지금은 全國民들의 環境權意識의 제고는 놀랄만큼 급신장되고 있다.

그 일례로서 작년에 北漢山開發이 발표되자 環境人은 물론 많은 住民들의 반축을 산 예를 들 수 있다.

45억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신비와, 35억년의 무수한 生態系의 오묘한 섭리에 200만년밖에 안된 人間들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環境保全의 메아리는 결국은 開發을 보류하는 사태로 까지 몰아가게 하였다.

環境保全運動은 이렇게 環境危機에 대한 예방과 대응능력을 길러주게 된다. 얼핏보면 成長에 장애요인이 되는 운동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人間과 環境間의 生産的이고 調和的인 쾌적한 環境을 보전케 해 줌으로써 결국은 깨끗한 成長,쾌적한 生活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을 부여

한다는데도 큰 뜻이 있다.

그러면 本 協會가 82년부터 지금까지 벌려 온 汎國民運動推進實績 및 파급효과를 대강 살펴보기로 한다.

(1) 排出業所 事業主에 대한 敎育實施

環境問題의 대부분이 企業活動에서연유된다고 할때 그 企業主의 環境輕視思想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현행법은 排出業體의 排出施設管理人에 대해서는 5년마다 1회이상 법정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事業主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그래서 本 協會는 이익과 이윤을 최대목표로 하는 事業主들에게 環境倫理觀의 확립들을 위하여 '82년에 9회 764명, '83년에 12회 1,321명에게 環境倫理敎育을 실시하였다.

(2) 主要工團巡回講演會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環境敎育과 강연의 目的은 전통적인 체제와 思考에서 벗어나 새로운 環境管理體制 및 環境倫理觀을 확립하도록 가치정립을 도와 주는데 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GNP 연 8%이상의 의욕적인 成長을 지속해온 經濟成長政策의 추진은 한마디로 環境保全을 외면한채 物量成長이 촛점이 주어진 관계로 오늘날 工團周邊은 해조류, 농작물 등의 피해문제가 급증되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本 協會는 우선 울산, 구미, 여천, 포항등 주요공단을 선정하여 공단 종업원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므로써 環境汚染의 최소화에 주력 해 왔다.

그 결과 울산등 공단에서는 환경오염피해보상협의회가 민간 기구로 자생적으로 발족되어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공단순회 강연회는 '82년에 10회, 1,531명, '83년에 10회 1,504명에게 실시 하였다.

(3) 民間團體 環境敎育

現代人은 물론 다음세대도 環境保全의 중요성을 배우지 않으면 保全義務를 다할 수 없을것이다.

이미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일반대중들에게 개개의 캠페인과 일시적인 계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교육을 사회교육적인 차원에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국영기업체, 각종사회단체, 학교교사 교육으로 실시한바 있다.

처음해인 '82년에는 국영기업체 중심에서 20회에 3,239명, '83년에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27회에 2,230명, '84년에는 학교교사를 중심으로 50회에 5,609명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4) 環境保全 캠페인

아직도 憲法에 明文化된 자기 權利인 環境權은 물론 環境의 날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 環境의 중요성을 고취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참여하여 이루어진 일은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마련이며, 참여를 통해서 일단 동의를 얻게되면 일의 실행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 진다는 뜻에서 이 保全運動 캠페인만은 영원히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서 '82년에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本會 전국회원 1,181명이 자진 참여하여 161개 주요장소에서 200,000명에게 환경표어와 주요내용이 담긴 리본 및 전단을 전달하였으며, '83년에는 회원 1,700명이 참여하여 171개 장소에서 220,000명에게 리본 및 전단을 배포하였고, '84년에는 166개장소에서 회원 1,352명이 참여하여 리본과 전단을 배부하면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특히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88년에는 올림픽대회를 앞둔 우리나라는 세계인의 잔치터인 서울市의 환경보전운동을 위해서 시와 협조되는 대로 별도의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5) 環境保全 啓導文 表示

生產과 消費를 美德으로 여겨온 기존의 成長제일주의 체제하에서 生產業體와 消費者들 모두에게 環境保全의 중요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82년에는 19개 生產業體의 2,724,827개의 生產

品에 표어 50,000개, 포스터 30,000개를 揭添하였고, '83년에는 36개 業體 17,163,308개 生産品에 표어 및 포스터 각 50,000개를 揭添하였으며, '84년에는 23개 業體 27,090,064개 生産品에 표어 및 포스터로 각 50,000개를 揭添하므로써 生産第一主義에서 서서히 環境保全과의 調和主義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6) 環境保全啓導放送

라디오, TV등 공영방송·방영의 기능은 흥미위주보다는 국민가치관의 바람직한 방향 또는 國益에 합당하는 방향으로 방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날 크로즈업 된 環境問題 특히 生態學的 危機(Ecological Crisis) 意識을 일반대중에게 널리 일깨우는데는 공영방송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은 아직도 서구와 같이 산성비 문제를 두고 연일, 수시로 방송되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本 協會는 '82년에 本會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방송에 12회, '83년에 8회, '84년에 4회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남겼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제전을 앞두고 매스미디아의 활용을 적극화 하고자 한다.

방송당국의 많은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7) 環境保全 꽃 나무 가꾸기

環境保全의 運動方向은 汚染의 예방과 개발로 인한 파괴의 방지에도 그 중요성이 있으나 우리 일상 생활주변을 늘 아름답게 가꾸고 쾌적하게 보전하여 여유있고 정서있는 生活을 누리도록 하는데 더 절박한 의의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과밀한 도시공간에 한 그루의 나무심기와 화단가꾸기, 베란다에 화분놓기 등으로 메말라 가는 우리 人生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 運動을 本會가 주창하자 각계 각층에서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고, 금년부터는 여성단체에서 "아름다운 서울 가꾸기운동"을 전개 하기로 한것은 모두 우리의 環境保全汎國民運動의 일환으로 외롭던 과거에 비해 마음 든든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실적은 '82년에 103개 업체, 화단면적 79,284평을 조성하고, 152,141의 나무를 심었으며, '83년에는 123개 업체, 화단면적 93,115평의 조성, 150,198그루의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였고, 작년부터는 각 업체 스스로에 의한 푸른 환경가꾸기운동이 전개 되도록 적극 권장하는 체제로 전환 하였다.

(8) 寫眞展示會

'83년부터 시작된 環境寫眞展示會는 環境汚染과 파괴 현장을 생생한 필름에 담아 시민들이 편리한 장소에다 전시함으로써 많은 관람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83년에는 서울시를 비롯 주요 도청소재지에서 5회에 걸쳐 26,450명의 뜻있는 자를 관람케 하였으며, '84년에는 7회에 걸쳐 56,764명을 관람케 함으로써 일반대중들에게 環境保全 意識을 새롭게 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서울의 環境保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구청 민원실에서 순회 전시케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불러 일으키도록 하고자 한다.

(9) 기 타

우선 住民意識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住民이 해야 할 내용을 담은 팜프렛을 '82년에 60,000부, '83년에 45,000부, '84년에 100,000부를 주로 일반대중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리고 '84년부터는 本會의 運動을 찬동하는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加入된 명예회원들에게 環境權思想을 함양하기 위하여 특별강연회를 전국적으로 11회에 걸쳐 1,034명에게 개최함으로써 지역중심별로 環境問題를 거론하도록 유도하는데 힘썼다.

끝으로 水系別, 영향권別에 의한 地域組織協議會의 운영강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82년에는 2,186명, '83년에는 1,386명, '84년에는 2,037명이 지역조직운영에 가입하여 앞으로의 그 활동이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그러면 '82년부터 지금까지의 環境保全汎國民運動의 主要 推進實績을 要約·整理하면 다음 별표와 같다.

〔별표〕 환경보전 범국민운동 추진 실적

사 업 명	82 년	83 년	84 년
1. 배출업소 사업주 교육	9 회 764 명	12 회 1,321 명	국고보조에서 배출업소의 자체 교육으로 전환
2. 주요공단 순회 강연회	10 회 1,531 명	10 회 1,504 명	국고보조에서 공단 자체 교육으로 전환
3. 민간단체환경교육	20 회 3,239 명	27 회 2,230 명	50 회 5,609 명
4. 환경보전 캠페인	168 장소 1,181 명 동원 200,000 명에게 리본, 전단 배포	171 장소 1,700 명 동원 220,000 명에게 리본, 전단 배포	166 장소 1,352 명 동원 220,000 명에게 리본, 전단 배포
5. 환경보전 계도문 표시	19 업체 2,724,827 개 표어 50,000 매, 포스터 30,000 매	36 업체 17,163,308 개 표어, 포스터 각 50,000 매	23 업체 27,090,064 개 표어, 포스터 각 50,000 매
6. 환경보전계도방송	12 회	8 회	4 회
7. 환경보전 꽃나무 가꾸기	103 업체 화단면적 79,284 평 152,141 그루	123 업체 화단면적 93,115 형 150,198 그루	각업체의 자율화에 의한 푸른주변 환경 가꾸기로 전환
8. 팜프렛 배포	60,200 부	45,000 부	100,000 부
9. 사진 전시회		5 회 참관자수 26,450 명	7 회 56,764 명
10. 명예회원특별강연회			11 회 1,034 명
11. 지역조직 운영 (명예회원확보)	2,186 명	1,386 명	2,037 명

〈끝〉

* 환경속에 사는 우리
보전하고 보호받자.